

## 고구려도시건설의 독특성

김 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역사적기간을 통하여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창조하여왔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귀중한 유산들을 남겨놓았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들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뚜렷이 보여주는 고구려시기 도시건설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족적정서와 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형적 형태와 여러가지 벽화, 채색장식으로 도시건설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우리 민족의 도시건설발전력사는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도시건설을 발전시켜온 인민대중의 창조의 역사이다.

중세시기 고구려의 도시건설만 놓고보아도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으로 세계에 자랑할만 한 건설기술을 보여주었다.

고구려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 도시건설의 역사를 제일먼저 개척해나가면서 독특하게 도시건설을 발전시켜왔다.

고구려도시건설의 독특성은 첫째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고려하여 도시위치가 선택되었다는데 있다.

고구려봉건국가는 령토가 넓어지고 나라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높아진 고구려의 격에 알맞는 새로운 도읍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일찍부터 발전하여온 평양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427년 집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였다.

평양은 고조선과 더불어 고구려의 도읍지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며 수많은 력사유적과 유물들이 있는 곳이다.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것은 우선 평양이 서북방으로부터의 외적의 침략을 더 잘 막아내며 남쪽으로의 진출을 적극화하는데 유리하였기때문이다.

집안에 수도를 정하고있을 때에는 외적의 침입으로 수도가 위협에 처하거나 지어 파괴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서북조선의 중앙에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경우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수도를 매우 안전하게 지켜낼수 있었다.

수나라 양제는 300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고구려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수도 평양을 장악하려고 하였으나 평양에 이르는 고사하고 봉황성에 전선지휘처를 둔 을지문덕이 지휘하는 고구려군과 애국적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에 의하여 멀리 살수계선에서 만회할수 없는 대참패를 거듭하고 쫓겨났다.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에 옮겨옴으로써 수도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었을뿐아니

라 대강국으로서의 군사적위력을 높이 떨치었다.

수도를 평양에 옮겨옴으로써 세나라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실현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었다.

고구려봉건국가가 수도를 먼 북쪽에 있는 집안으로부터 조선반도서북지방의 중심에 자리잡은 교통의 요충지인 평양으로 옮겨옴으로써 평양을 거점으로 백제와 신라를 하나의 고구려에 통합하려는 남진정책실현에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것은 또한 평양이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기때문이다.

평양은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 문화발전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에게 일찍부터 알려진 곳이었다.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로 됨으로써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일대의 비옥한 벌방지대에서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었으며 평양지방에서 일찍부터 발전한 쇠부리와 금속가공기술은 무기를 비롯한 수공업생산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고구려도시건설의 독특성은 둘째로, 위성방위체계를 철저히 갖춘 도시건설이었다는데 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완비된 방위위성체계를 갖추고있었다. 평양은 사방으로 수백리 주위에 외곽방위위성체계를 이루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수도 평양에 천연요새화된 대성산성과 평양성을 건축하여 그 어떤 적도 범접 못하게 하였다.

대성산성은 평양천도이후 기본수도방위성으로서 해발 270m의 을지봉을 주봉으로 하고 장수봉, 소문봉, 주작봉, 북장대, 국사봉을 련결하는 둘레길이 7 076m나 되는 큰 고로봉식산성이었다.

대성산성은 지형을 잘 리용하면서 적이 범접하기 어렵게 건축되었다. 대부분의 성벽은 산릉선을 따라 외벽성으로 구축되었는데 성돌은 대부분 4각추형으로 사암과 일부 화강석을 다듬어썼다.

소문봉에서와 같이 일부 구간들에서는 성벽이 밖으로 무너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3~4단의 덧벽까지 설치하였다. 그리고 비물이 많이 모일수 있는 곳에는 성밖으로 막돌을 두텁게 깔아 비물에 패이지 않게 하였다.

골짜기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작봉 량쪽 골짜기에는 2중, 3중으로 성을 쌓았으며 넓은 주작봉 동쪽 골짜기에는 980m의 구간에 2중성을 쌓고 거기에 남문을 건축하였다.

성안에는 유사시에 적과 싸우는데 필요한 일련의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들이 건설되어있었다.

성안에서는 170여개의 못자리들이 알려졌는데 그중에는 샘이 솟아나는것도 있고 비물을 받아두는 물주머니도 있다. 못의 평면형태는 정방형, 장방형, 삼각형, 원형 등으로 되어있다. 못들은 깨끗한 물을 저장할수 있고 가물때에는 물이 적게 증발되게 만들었다. 못은 물을 한번 잡아두고 쓴 다음에 흘러내리게 한것이 아니라 큰 못아래에 작은 못을 1~3개 련달리게 함으로써 차고넘친 물이 다음못에 흘러들게 하였다. 이것은 용도에 따라 물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성안에는 여러가지 건축물이 있었다. 지금까지 20여개의 기와집터를 비롯하여 많은

집자리들이 드러났다. 그 집자리들중에는 조, 수수, 밀 등 곡식을 저장했던 약 80m길이의 큰 창고와 전망이 좋은 곳에 있는 장대터도 있다. 장수봉밑에는 행궁과 행궁성까지 있었다.

안학궁을 중심으로 도시가 전개되어있는 대성산성 소문봉남쪽은 동쪽과 남쪽으로는 넓게 대동강이 굽어흐르며 서쪽에는 합장강이 있고 북쪽에는 대성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으로 산줄기와 련결되어있어 평양은 천연의 요새지였다.

평양성은 천연요새지에 건축된 우리 나라 중세도시의 첫 도성이였다.

평양성의 동, 남쪽으로는 대동강, 서쪽으로는 보통강이 굽어흐르는데 이것은 천연의 해자와 같은것이였으며 북쪽에는 높은 산이 솟아있는데 이것은 천연의 장벽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러므로 후세의 기록들도 평양에 대하여 《북쪽은 산이 막고 다른 3면은 물이 막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은 앞강과 뒤내로써 성호를 삼고있으니 이것은 실로 하늘이 만들어준것이며 땅이 마련하여준 요새이다.》(《평양지》)라고 하였다.

평양성은 산성과 평지성의 좋은 점들을 살려 평지와 산지를 련결하여 자유롭게 쌓은 평산성으로 되어있다. 즉 대동강, 보통강기슭에서는 평지를 따라 성을 쌓고 만수대와 모란봉에서는 산기슭과 산릉선을 따라 성을 쌓았다.

평양성은 크게 4개의 성으로 나뉘어져있다. 만수대를 에워싸서 두른 내성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는 모란봉을 에워싸서 두른 북성이 있으며 내성의 남쪽에는 창광산, 해방산, 안산밖으로 멀리 두른 중성이 있고 중성남쪽별판에는 넓게 외성이 둘러져있다.

중성과 내성의 일부 성벽은 외면성벽의 독성벽으로 되어있고 내성벽과 북성벽은 외면성벽의 벵랑성벽으로 되어있으며 외성벽은 독성벽으로 된 흙성벽이다.

평양성은 든든하게 쌓은 성이였다. 만수대와 모란봉에서와 같이 암반이 깔린 곳에서는 겉흙을 들어내고 그우에 성을 쌓았으며 지반이 약한 흙으로 된 곳에서는 너비 약 4m, 깊이 약 3m를 파고 거기에 큰돌을 놓고 그우에 성을 쌓았다.

대동강기슭의 일부 외성벽에서는 흙성벽이 씻기우는것을 막기 위하여 성밖 약 50m까지 강기슭에 조약돌과 진흙을 엮바꾸어 다지기도 하였으며 중성의 서쪽 보통강기슭의 감탕지대에서는 통나무를 가로, 세로 촘촘히 깔고 그우에 성을 쌓아 천연요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도시건설의 독특성은 셋째로, 체계정연한 리방제도에 의하여 도시건설이 진행되었다는데 있다.

평양성안의 외성안의 넓은 벌에는 정연하게 리방이 형성되어있었다.

외성안의 전체 도시령역은 대체로 井형으로 구획되였는데 리는 16개의 방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방은 또 田형으로 즉 4개의 작은 방으로 구획되였다. 1개의 리안에 있는 방수는 16이였고 작은 방수는 64였다.

리의 크기는 2 000자였는데 안학궁의 전체 부지와 외성안의 리방을 4×4분할법(4평방분할법)에 의하여 나누고 건설조직이 된것은 고구려때에 2×2, 4×4, 8×8 등 나누기 쉽고 곱하기 쉬운 수자로 건설총계획을 하는 발전된 방법을 고안하고 널리 활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와 리, 방과 방, 작은 방과 작은 방사이에는 동서, 남북으로 바둑판처럼 길이 나있었다. 고구려자로 리들사이에는 40자, 방과 방사이에는 13.5자, 작은 방과 작은 방사이에

는 4.5자너비로 된 길들이 나있었다. 이 길들은 대동강의 강자갈로 포장되어있었고 리와 리사이의 큰길 량쪽에는 너비 0.6~0.7m나 되는 물도랑이 규모있게 나있었다.

《기전유제설》에는 작은 방사이의 길(소로)은 1묘, 방사이의 길(중로)은 3묘, 리사이의 길(대로)은 9묘의 너비로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70묘로 된 구의 크기를 계산하던 방법으로 도로너비를 계산하면 1묘, 3묘, 9묘의 너비는 각각 1.19m, 3.57m, 10.72m로 된다. 이 너비는 도로량쪽에 있던 도랑의 너비를 포함시키지 않은것이다.

주제48(1959)년에 13.8~13.9m의 너비로 된 거피문을 통하는 남북대로, 13.9~14m의 너비로 된 함구문을 통하는 남북대로 즉 리들사이의 길들이 드러났다. 이 도로들의 전체 너비는 물도랑까지 합하면 고구려자로 40자라는것을 보여준다.

이 40자너비의 도로에 준하여 《기전유제설》의 1묘, 3묘, 9묘로의 비례로 도로의 너비를 고구려자로 환산하면 소로, 중로, 대로의 너비는 각각 4.5자, 13.5자, 40자로 된다.

대로 즉 40자너비로 된 도로는 조선봉건왕조때의 중성벽의 남문들이 함구문과 정양문 그리고 외성의 동, 서문인 고리문과 다경문, 외성의 제일 남쪽문인 거피문을 련결하는 성안의 기본중심도로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리방제도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체계정연한 이러한 리방제도는 강대한 고구려의 발전된 도시건설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으로 고구려시기 도시건설은 세계에 자랑할 만 한 높은 기술로 독특하게 진행되였다.

우리는 고구려의 도시건설을 통하여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하루빨리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